환경 과 反차별

NO. 2

목 차

반자본주의자의 저항운동

— 반세계화의 아나키스트 운동론 —

노이즈(Noiz)

일본의 반세계화 행동 — ACA의 투쟁

2001년 10월 18일, 수상저택 앞에서 ACA(Anti-Capitalism Action)이라는 행동그룹 10여명은 고이즈미 수상의 APEC 수뇌회의 참가에 대한 긴급항의행동을 감행했다. 이것은 9.11 사건 후 미국 정부에 의한 '보복'전쟁이라는 국가테러 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APEC회의에 반대하는 행동이었지만, 엄중 경계 중이던 기동대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그러나 ACA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날 밤에 도쿄 시부야에서 APEC '반테러'회의를 동아시아에서의 세계자본주의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데모를 벌였다. ACA는 "세계화를 해체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투적인 데모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다국적 기업 점포에 대해 반대구호를 외쳐댔다. 또 ACA는 11월 1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G20과 IMF 회의에 대한 현지 항의 행동에 연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동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저지당하면서도 도쿄에 있는 IMF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일본에서 IMF와 세계은행 등을 의식적으로 '직접항의' 대상으로 하는 행동은 이제까지 그다지 흔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ACA와 같은 조직들이 등장한 것은 점점 고양되어지는 전 지구적인 반세계화 운동에 대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웹사이트의 텍스트나 전단, 기관지 등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조직들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직들은 새삼 세계자본주의 반대.신자유주의반대를 부르짖으며 결집하고 있는가? 다음의 대답은 나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ACA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견해이며, ACA의 공통된 인식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ACA는 개인의 공동투쟁을 바탕으로 한 행동체이며, 통일된 강령이나 규약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CA는 반세계화 투쟁을 위한 결집축이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상과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공동투쟁의 틀이며 서로 일치되는 지표는 그 이름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자본주의.반세계화다. 예를 들면, 나와 같은 아나키스트적인 입장을 갖는 인간도 그런 일치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참가가 가능하며 또 아나키스트가 아니라도 그렇다. ACA 웹사이트의 '개인 공동투쟁'이라는 표현은 분열하지 않기 위한 구심점을 의식한 느슨한 집합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일본에서는 종래의 좌익운동은 기진맥진하다. 기성좌익은 말할 것도 없고 신좌익이라는 기존의 모든 좌익조직도 종래 전선의 방위에 급급할 뿐 권력—자본측의 공세에 대해서는 수세일변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일찍이 '과격파'라던 이미지를 벗어나 살아남기 위한 대중운동이나 노동전선으로의 이동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광의의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잡다한 경향의 사람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위해서 직접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상에서 보면, 조직의 항상적 존재나 확대와는 관계가 없는 곳에 ACA가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공동행동의 축으로서의 ACA가 왜 반세계화를 부르짖고 나아가서 데모의 한가운데서 세계 자본의 상징적인 다국적 체인점에 대해서 '직접항의'의 목소리를 질러야 했었나?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달리 사실을 얘기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그것으로 직접적인 변혁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 그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억지를 쓰고 싶지는 않다. 단지 공감.반감.무시 등 그 어떤 반응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한사람의 행인에게 어필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직접항의'의 데모가 어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가시기만 한 행위로서 '직접행동에 의한 의사전달수단'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생각이 그다지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맥도날드는 숲을 불살르지 말라!", "스타벅스는 모노컬쳐(문화적 획일화)를 강제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외쳐대는 이상한 데모가 재미나서 하는 거다! 하는 마음조차 있다. 다른 ACA 참가자에게 꾸중을 들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전자의 의문, 왜 반세계화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ACA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덜 일반적인 아나키스트적인 입장에서 불충분하지

만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ACA의 입장에 대해서 필자 개인은 대변할 수 없다.

반세계화라는 운동

반세계화 투쟁은 이제는 시장자유화에 대한 현대의 저항운동이다. 그것은 다국적 자본이 세계를 마음대로 하는 데 대한 사회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실력행사에 의한 정치에의 직접개입을 통한 변혁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운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구미에서 급속하게 확대된 것이며 그리고 또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전지역에서의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의 당사자에 의해서 거꾸로 재발견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아나키스트가 추구하는 무정부공산주의나 직접민주주의', '볼세비키의 중앙집권적인 공산주의', '대안노선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에 의한 개량주의' 등등의 대치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 NGO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정한 상거래' 등 수정자본주의적 요구 등도 존재한다.

반세계화가 사회운동으로서 새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원리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집합적인 합승운동이면서 국내에 국한된 범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운동의 표적에 브레튼우즈 기관의 IMF/세계은행 또는 OECD(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WTO(세계무역기구), WEF(세계경제협의회의) 등의 다국적 기관이나 선진국 수뇌회의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시장원리주의를 확대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반세계화운동에 결집된 모든 세력은 시장원리주의가 강화되고, 대자본의 다국적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야기되는 지역.계급간 격차의 가속도적 증대에 반대하여 다국적 기관, 선진 각국 수뇌회의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행동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회의개최지에서의 투쟁에 그치지 않고 이에 연대하는 투쟁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 세기말, 소련 등의 스탈린주의자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정치체제가 붕괴된 후, "역사는 끝났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탱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르조아 정치체제의 유일 정당성이 신자유주의자에 의해서 선전되어 왔다. 이에 대해 그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보이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혼미를 거듭하고 출구가 없는 듯이 보이던 시장원리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 스스로 세계화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새로이 나타난 것이다.

반세계화 투쟁에는 갖가지 운동체가 결집되어 있다. 그곳에는 도상국의 채무말소를 요구하는 NGO와 투기적 금융거래에 관세를 요구하는 ATTAC 등의 사회운동조직에서부터 기존 에콜로지스트 조직,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까지 합류하고 게다가 아나키스트나 볼세비키 등 래디칼한 개인이나 그룹이 참가하고 있다. 또, 종래의 당파로 한데 묶기에는 좀 애매하고 게다가 급진적인 반자본주의자를 자칭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참가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은 이러한 다양한 운동체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개의 운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두고 참가했다는 점이다. 우선, 분열을 내포한 현장투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투쟁이 만나는 반세계화 운동

시장자유화를 지상명제로 하는 미합중국형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른바 도상국 민중은 항상 저항해 왔다. 그런 중에서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EZLN투쟁에 대표되는 "이제 그만 두라!", 신자유주의를 명확히 거절하는 의지는 세계민중의 압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선험적 메르크말(지표)의 하나가 되어 선진제국에서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힌트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투쟁은 경험의 공유화로 세계화한 모양으로 나타났고, 시장원리주의를 방치한 데 대한 이의제기라는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물론 변혁의 최종목표가 혁명이냐 개량이냐 하는 것은 따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구미의 반세계화 운동은 본질적으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렛세페르(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있을 수 있는 갖가지 반응의 집적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상국의 전지역에서 줄기차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측에서도 또 이들 북측 민중의 반응에 말을 맞추고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11월의 반WTO 투쟁에서는 WTO회의가 접근이 어려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바람에 여하간에 회의장소에 모이는 게 곤란한 관계로 오히려 전세계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반대투쟁에 나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미 각 도시에서의 반대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 마닐라 등 아시아 각지에서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격렬한 투쟁도 있었다. 참가자의 숫자로 말하면, 30만

명이라던 7월의 제노바 서미트의 규모를 웃돌지 않았을까 하는데 규모에 의한 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각지의 투쟁이 현지 거주자에 의해서 각각 쟁취되었다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성은 공간의 즉시적 공유만을 요구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세계화 운동의 현대성

그 목적이 혁명이든 자본주의의 수정이든 간에 지금의 운동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어진 각자의 상황을 초월해서 전세계의 항의자들이 공통의 키워드나 슬로건을 채택하고 또 그 수단으로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탄력적인 연대를 획득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아주 현대적 네트워크의 형성이야말로 전술 전략적으로 이제는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양식의 흐름은 1999년 11월의 '시애틀 투쟁'(반WTO행동 NGO)을 계기로 하고 있다. 인디미디어가 오늘 반세계화 운동을 어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매스미디어에 대항해서 시애틀 행동을 보도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풀뿌리 자율미디어 활동가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는 현재도 반세계화 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풀(full) 가동하고 있으며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자원과 더불어 운동을 지탱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디미디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집합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를 포함, 누구나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사진, 영상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디미디어에는 오직 한가지 투고 규정이 있다. 그것은 정보자원의 저작권을 카피레프트에 두어야 한다. 카피레프트란, 정보는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고안된 역설적인 카피라이트(안티카피라이트)의 한 형태이며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자유를 뜻한다(1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인디미디어의 정보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가 순식간에 전세계에 공개되고 공유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으니, 그 영향은 무한하다고 하겠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있지만, 정보자원의 공유화에 의한 지식해방과 민주화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벌써 매스미디어의 정보통제와 관계가 없는 이런 미디어 액티비즘(Activism)과 사회운동의 조우는 운동의 양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인디미디어 웹사이트에서는 운동 내외의 논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논의는 현장으로 환원되고 다시 현장에서 자율미디어로 환원되는 구조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자율적 정보운동이 가져다 준 변혁은 일부 운동체나 행동체의 조직화에서도 나타났다. 행동의 스케줄을 짤 때 웹에 내놓을 수 없는 범위의 정보가 공개되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조직의 분산적 성격도 강화시킨다. 강력한 헤게모니가 없더라도 이러저러한 차이를 가지면서도 많은 운동체가 각각 행동의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한 것이다. 또 무릇 인디미디어에 국한하지 않고 항의 행동에 참가하는 활동가가 네트워크상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애틀 행동에서도 웹사이트.메일링리스트.채팅.게시판(회의실) 등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과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런 정보집적을 전제로 하는 행동의 기동성 있는 조직화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로 하여금 "챗트룸(대화방) 혁명"이라고 말하게 할 만큼이었다.

분열의 포섭

다국적 기관 등의 회의에 대한 가두항의행동이라는 반세계화 운동의 양식이 정착된 것은, 1997년 6월의 암스테르담 EU서미트 반대 데모, 12월의 OECD 파리본부에 대한 NGO의 MA1(다국간 투자협정) 반대 데모 이후부터 일 것이다. 이 당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민중의 국제적 투쟁이라는 의미에서는 선구적이었다. 1998년 6월의 버밍엄 G7 서미트, 1999년 6월의 케른 G7 서미트에 집결한 사람들의 계속된 경험과 대외적인 영향은 더욱 확대되었다. 채무말소를 요구하는 NGO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인 Jubilee 2000은 3만 5천명을 동원해서 회의장을 둘러싸고 G7으로부터 700억$의 채무삭감공약을 받아냈다.

이러한 선험적인 대중투쟁 경험을 토대로 종래의 시민운동을 구성하는 NGO단체, 환경단체, 노동단체 농민조직에서부터 자본주의 그 자체를 타도하려는 아나키스트나 볼세비키와 그 계열의 노조군 그리고 반자본주의자로 자인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수뇌회의 브레튼우즈 기관 등의 회의에 대한 항의행동에 급속히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결절점이 바로 시애틀 항의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양보를 각국 정부나 국제기관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NGO들조차 대응이 갈라졌다. 시애틀에서는 WTO에 영향력 행사를 직접적 전략으로 한 NGO 네트워크가 집결했는데 이들 내부에서조차 전술로서 항의행동에도 참가하는가 또

는 로비활동에 중점을 두는가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WTO나 노동조합, 농민단체, 좌익, 아나키스트, 반자본주의자는 물론 항의의 시위행동 그 자체를 채택하는 진영에서는 파괴활동을 포함하는 격렬한 항의행동의 시비를 싸고 분열이 있었다. 특히 근년 그 존재가 클로즈업된 반자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의 일부 '과격한' 항의스타일이 물의를 일으켰으며 혁명적 좌익을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시애틀 투쟁은 가두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WTO의 갖가지 회의를 중지하게 하고 마침내 각료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의 의의는 사회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다음해 프라하/세계은행 연차회의를 실질적으로 우회하게 한 투쟁도 또한 직접적인 항의행동이 없으면 도저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투쟁 측의 노선대립. 분열을 내포하면서도 갖가지 국제회의를 중지.연기하게 한 항의자들의 총체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2001년 9월 제노바서미트에서의 G8 수뇌의 태도에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쟁을 일으킨 직접행동파의 투쟁

시애틀 투쟁에서 자칭 아나키스트.반자본주의자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직접행동에 의한 선전을 했는데, 투쟁 참가자의 다른 흐름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기억에 새롭다. 블랙블록 등 직접행동파.반자본주의자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점포나 또는 은행 등을 습격하고 진열장을 파괴하는 등의 격렬한 행동을 했는데, 매스컴은 이에 달려들어 선전하고 '시애틀 폭동'이라고 떠들어댔다. 이 때문이었는지 이런 직접행동이 불필요한 치안당국의 탄압을 초래했다고 하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몇몇 반세계화 투쟁에서 항상 볼 수 있다. '유럽 2001 레지스탕스의 여름'이라는 EU서미트 반대투쟁에서도 직접행동파의 반자본주의자에 대해서 '검은 파시스트'라는 천박한 것에서부터 '필요 없는 탄압을 부른다'는 전술에 관련된 것까지 많은 비판이 갖가지 운동체로부터 나왔다. 제노바서미트 반대투쟁에서 희생자가 나온 후에 ATTAC 프랑스의 간부는 "블랙블록은 경찰과 내통한 도발그룹"이라는 정보를 무원칙하게 흘리는 선전이 있었으며, 웹이 공개한 ATTAC내의 뉴스레터 등에서도 운동총체에서 추방을 요구하는 듯한 성급한 캠페인이 있었으며, 또 ATTAC를 지지하는 제4인터(만델파) 트록키스트는 전술비판을 했다. 게다가 아나키스트 내부에서도 전술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는 경찰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의 원인이 직접행동파에 있다고 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ACME콜렉티브(공동체)가 무원칙한 비폭력주의를 비판하여 블랙블록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을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CME공동체는 블록에 집결한 개인이 형성한 몇 개의 집단을 말한다.

이 성명의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본지에 소개되어 검토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성명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보기로 한다. 이것은 성명에서 언급된 「블랙블록에 관한 10가지 신화」의 일부이다.

4. "블랙블록이 11월 30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저항 비폭력적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가스를 뒤집어쓰게 했다"
   – 이에 대한 회답은 다음을 보면 좋을 것이다. 최루가스·페퍼 스프레이·고무탄 사격은 완전히(우리가 알고 있는 한) 블랙블록이 기물파손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되었다. 좀더 말하면, 우리는 그들이 기물파괴를 하든 안 하든 항의행동과 경찰의 억압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은 부(富)를 손에 넣은 소수의 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이 이러한 이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5. 반대로 "블랙블록은 경찰의 억압에 대응해서 행동했다"는 소문도 있다.
   – 이것은 소문중에서 블랙블록에 호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잘못된 것이다. 블랙블록이 순수한 반작용적 힘이라고 곡해 당하는 것은 싫다. 블랙블록의 행동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짜여진 적극적 논리인 것이다.
6. "블랙블록은 성난 청년들이다"

– 그 밑바닥에 있는 구토증이 나는 연령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거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잘못이다. 기물파괴행위는 단순히 유치한 민중선동이 아니며, 남성호르몬이 유발한 분노의 발산도 아니다. 대상행위나 반사적 분노도 아니다. 기물파괴행위는 대기업 이권에 대한 직접행동을 전략적으로 본질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블랙블록이란 무엇인가?

블랙블록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88년 펜타곤 행동이었다. 가두에서 파괴행위를 하게 된 것은 걸프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에서였고 그후 그때의 스타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간략한 얘기는 웹사이트(「BLACK BLOCS for Qummies」)에 정리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1980년대 독일에서 등장한 아우트노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원래 블랙블록은 정적(靜的) 조직조차도 아니다. 그것은 아나키스트와 그들의 동조자들에 의한 현장투쟁 집회이며 행동마다 집결했다가 해산한다. 일시적인 자율지대를 동적으로 형성하는 행동체 이다. 블록의 행동에는 행동마다 이러저러한 개인이나 그룹이 결집한다. 그것은 블록 참가자의 성명이 항상 참가자로서 발표되고 블록의 명의로 씌어지지 않은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 블랙블록은 항상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다. 날조로 사형판결을 받은 블랙 팬서의 활동가 무미아.압.자말의 구원투쟁에는 '평화적'으로 참가하는 블랙블록도 있다. 2001년 4월 퀘벡 반FTAA 투쟁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비폭력직접행동' 훈련을 받고 투쟁에 참가했고 또 데모 현장에서는 평화주의자들과 별도로 형성해서 FTAA 회의장을 포위했다. 또 도로를 점거, 일시적인 '해방구'를 형성했다. 언제나 다국적 자본의 사유재산파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퀘벡투쟁에서는, 중장비 기동경찰대와 부딪치는 격렬한 투쟁은 미국에서 온 블록뿐만 아니라, 현지 '프랑스말을 하는' 블록이나 CLAC.CASA NEFAC 등 현지 아나키스트 조직의 활동가나 미국에서 참가한 모택동파 공산주의자 Red Flag 등이 집결했다. 그 곳에서는 항상 모두 서로 도와가면서 투쟁을 관철시켰다. 그것은 탄압을 미리 예상하고 법적으로 옹호하는 팀을 만들고 가두구호반, 간이야전병원까지 편성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반자본주의자의 격렬한 투쟁은 400명이 넘게 체포되었지만 구원활동은 초당파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나키스트의 보고, 그 밖의 미국의 모택동파 혁명적 공산당의 보고도 있다.

그러나 블랙블록의 투쟁양식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파괴행위가 결과적으로 경찰의 탄압을 초래했다고 해도(그러나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앞의 성명에 있다.) 누가 그것을 책임지는가하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된다. 이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인의(仁義)의 문제이며 투쟁의 장을 공유하는 다른 조류와의 대화가 블록에 계속 요구될 것이다. 단지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투쟁의 장을 대체 누가 독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리고 시애틀에 한해서 얘기하면 당사자인 ACME콜렉티브는 위에서 인용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 "블랙블록은 무질서상태에다 혼란을 야기하며 기회주의적인 폭도이다"
   – 우리들 많은 사람이 "무질서상태"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며칠 동안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조직은 유동적이고 동적인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긴장된 것이었다. 기회주의적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행동에 참가한 몇 천명의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의제를 전진시키려고 시애틀에서 창출된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등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에 있고 우리들 대부분은 확실히 도움을 주었다.(이것이 다음 신화를 만들었지만)
9. "블랙블록은 투쟁을 모른다" 또는 "블랙블록은 N30을 창출한 활동가가 아니다"
   – 우리는 직업적 활동가가 아니지만 시애틀에서의 집중행동을 위해서 활동했다. 이 집중행동을 위해서 자기 고장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몇 달 전부터 시애틀에 가서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 확실히 30일날 길에 나온 수백 수 천명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 아주 소수가 블랙블록과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세계화된 경제·유전자공학·자원채굴·수송·노동관행·토착적 자율성의 소멸·동물의 권리·인권문제 등등에 대해서 연구했으며 몇 년 동안이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활동했던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반자본주의자와 아나키스트

반자본주의자를 의식적으로 자칭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고전적인 아나키스트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견해이다. 도대체 아나키즘은 하나로 정리된 사상적 경향을 말하는 게 아닌데, 본질적으로 고전이니 신흥이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선전'은 일찍이 아나키스트가 강력히 권장한 운동이었다.

현대에 와서 가두에 벌이는 직접행동파의 행동양식이 신기하게 보였다고 해도 그 사상의 본질이 특별히 새롭다고 한다면 실태를 잘못 본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블록 참가자의 텍스트에는 항상 사회혁명을 찬양하는 언어가 보인다. 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의견도 표명된다. 무엇을 위한 행동체인가는 명확하다. 아나키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다. 행동양식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NEFAC 등 무정부공산주의가 연대하는 것도 그게 이유라고 생각한다. 퀘벡투쟁에 즈음해도 CLAC-CASA에 의한 블록과의 공동투쟁도 그 입장과 목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또 워싱턴DC의 ACC도 똑같은 입장이다. 9월말의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데모중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은 ACC와 그들의 동조세력이었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전쟁에 반대하는 아나키스트의 검은 블록을 가두에서 조직했다. 9.11사건이 없었다면 중지되지 않았을 IMF/세계은행 회의에 대항해서 그 해체를 부르짖는 행동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ACC는 현재 2002년 1월말에서 2월 상순에 뉴욕에 있을 WEF회의에 대한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나키스트 진영에서도 블랙블록에 대한 전술비판이 있었다

반자본주의자들은 격렬한 가두투쟁을 실행하는 검은 조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조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술로서 파괴활동을 채택하지 않아서인지 반세계화운동에서 블랙블록처럼 일방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얀 연계'와 'Ya Basta!'이다. 이 두 개의 그룹은 반세계화의 항의행동에서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스스로를 방패로 해서 경관대의 저지선 돌파를 꾀하거나 아니면 '평화적 데모'와 경관대의 완충역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프라하 반 IMF/세계은행에서 현저히 나타났으며 예테보리 투쟁에서는 영국의 '하얀 연계'인 'WOMBLES'는 제노바 투쟁에도 참가하고 이태리의 '하얀 연계' 'Tute Bianche'와 함께 행동했다. 그런데 Ya Basta! 의 한 그룹은 파괴활동을 하는 아나키스트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목격한 'WOMBLES'가 비판하는 등 '하얀 연계'—'Ya Basta!' 의 조류도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개개의 그룹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판단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다. 반자본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단정하는 것을 피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외재적 논평에 대해서 그저 사실을 대치하는 데 그치겠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잡지 간행의 스케줄도 있고 해서 조급히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했다고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아나키스트 운동이 어떻게 반세계화운동에 기여하고 또는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필자도 자각하고 있다.

그 표장(表裝)만을 얘기하기 쉬운 '새로운 아나키스트'에 대한 실태—그리고 그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왜곡되고 은폐되기 쉬운데—에 대해서는 최저한의 설명을 해보려고 했다. 반세계화운동에서 보면 다른 아나키스트나 아나코생디칼리스트의 투쟁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체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대열로부터 전술에 관한 '행동에 의한 프로퍼갠다'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지에서도 앞으로 세계화와 아나키스트에 관해서 검토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변변치 못한 결과를 토론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9년 11월 시애틀

- ACME공동체의 11월 30일 블랙블록의 성명(1999/12/04 10:48 a.m.) -

이것은 11월 30일의 시애틀행동에 참가한 블랙블록의 한 섹션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이 섹션은 블랙블록에 참가한 개인이 속하는 그룹이며 시애틀의 번화가에 있는 이러저러한 대기업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했다. 공격대상은 (겨우 몇가지의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콜롬비아의 우와족을 파멸로 몰고 간 옥시덴탈 석유에 투자한 주요기업이다)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US뱅코오드 • 커뱅크 • 워싱턴 상호은행
  (대기업에 의한 억압확대의 열쇠가 되는 금융기관)
- 올드네이버 • 바나나 • 리퍼블릭 • GAP
  (핏셔족, 북미 서북부의 삼림지대와 착취공장의 노동자 등의 강간자들이다)
- 나이키 • 타운과 리바이스
  (너무 비싼 상품이 노동자 착취공장에서 만들어진다)
- 맥도날드
  (노예적 임금체제의 패스트푸드 행상인이며 목초지를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살하고 있다)
- 스타벅스
  (중독물질 행상인, 그들의 상품은 극빈의 농민들이 저보수로 수확한 것이며 수확의 과정에서는 농가가 소유한 삼림을 파괴해야 한다)
- 워너브라더즈
  (미디어 독점기업)
- 플래닛헐리우드

이 활동은 5시간에 걸쳐서 점포정면의 유리창과 도어를 파괴하여 점포의 외관에 흠집을 냈다. 빠징코, 신문받이, 해머, 지렛대, 빠루 등으로 전술적으로 대기업 소유물을 파괴하고 안으로 들어갔다(표적으로 세군데. 스타벅스와 나이키, 타운 중 한군데에서는 약탈도 있었다. 용액이 들어있는 계란, 페인트볼, 페인트스프레이도 사용했다)

블랙블록은 몇몇 친화그룹과 번화가를 왕래하는 개인의 느슨한 집단인데 어떤 때는 부수기 쉬운 중요한 점포에서, 또 경찰조직의 목전에서 형성되었다. 페퍼스프레이를 뒤집어쓰고 최루가스 공격을 받고 고무탄을 얻어맞기도 한 어느 활동가들과는 달리 블랙블록의 대부분은 끝까지 움직이면서 경찰과 접촉을 피함으로써 중상을 입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서로 동아리였고 친밀한 친구였으며 서로서로 도와주었다. 연방정부의 갱들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은 머리회전이 빠른 블랙블록의 조직멤버 덕분에 체포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대감은 외경심을 자아낼만한 것이었다.

평화경찰

불행하게도 평화경찰의 존재는 대단히 불유쾌한 것이었다. 적어도 6차례나 기회 있을 때마다 "비폭력활동가"는 대기업소유물을 표적으로 한 개개인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 나이키.타운의 점포에 가서 블랙블록을 붙잡아 밀어 제치는 행동을 하는 자까지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자칭 평화유지자는 블랙블록의 개개인에 대해서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제복을 입은 폭력적이고 악명 높은 평화유지자들보다 더욱 협박적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함정수사원은 활동가 평화유지자의 보호를 이용해서 대기업소유물 파괴활

동을 하는 사람들을 잠복 감시까지 했다.)

블랙블록에 대한 반응

블랙블록에 대한 반응은 비폭력 활동가 공동체의 몇가지 모순과 내부억압을 나타내고 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그들의 대부분은 기물파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말하는 명백한 위선은 그만두더라도 특권을 가진 활동가에 의한 레이시즘(인종차별)은 존재한다. 그들은 사적소유권이란 이름으로 사회의 대부분과 자연계에 대해서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폭력을 무시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유리창을 깬다는 것은 거대한 인형이나 바다거북의 의상이 이제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시애틀지역에 있는 가장 억압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끌어들이고 고무했다(다른 지역에서 이런 도구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폄하할 뜻은 없지만)

블랙블록에 관한 10가지 신화

N30의 블랙블록에 관해서 유포된 신화를 여기서 말끔하게 씻어버리자!

1. 블랙블록은 모두 유진(미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의 아나키스트이다

- 유진에서 온 아나키스트도 몇 사람 있지만 우리는 미합중국 전지역에서 물론 시애틀에서도 왔다.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들의 대부분은 시애틀에서의 지역적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예를 들면 가장 극악무도한 다국적 소매업자들 몇몇이 최근 시애틀 번화가를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2. 블랙블록은 모두 '존 자잔(John Zerzan)'의 신봉자들이다

- 유포된 많은 소문은 우리가 기물파괴를 옹호하고 있는 유진 출신 무정부주의자 작가 존 자잔의 신봉자라는 것이다. 우리 중에는 자잔의 저작과 분석을 평가하고 있는 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무엇이든 그는 우리의 지도자 따위가 아니다

3. 대중적 스쾃트(mass public squat)는 11월 30일의 기물파괴를 한 아나키스트의 본부이다

- 실제로 자율적 스쾃트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애틀의 거주자이며 그들의 스쾃트가 11월 28일에 시작된 이후의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고 있다. 아나키스트와 스쾃터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을 이유도 없고 어떠한 경우이든 스쾃트가 기물파괴행위를 한 사람들의 본부라고 볼 수가 없다. 블랙블록이 11월 30일의 상황을 악화시켜서 무저항 비폭력적인 시위참가자들이 최루가스를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4. 블랙블록이 11월 30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저항 비폭력적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가스를 뒤집어쓰게 했다

- 이에 대한 회답에는 다음 사실을 지적하면 될 것이다. 최루가스 페퍼스프레이 고무탄사격은 완전하게 모두(우리들이 아는 한) 블랙블록이 기물파괴행동을 하기 전에 시작된 것이다. 좀더 말하면, 우리는 여하한 형태의 시위행동이든 그게 기물파손행위든 아니든 시위행동과 경찰의 억압사이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은 부를 손에 넣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이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경찰)에게 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역으로 블랙블록은 경찰의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했다는 소문도 있다

- 이러한 소문 그 자체는 블랙블록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잘못이다. 자기들이 단순히 반작용적인 힘이라는 곡해도 받을 수 없다. 블랙블록의 행동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한 경우이든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짜여진 적극적인 논리인 것이다.

6. 블랙블록은 분노한 청년들이다

- 이에 내포하는 연령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잘못이다. 기물파괴행위는 단순히 유치한 민중선동도 아니고 남성호르몬이 유도한 분노의 발산도 아니다. 대상행위도 아니고 반사적 분노도 아니다. 기물파괴행위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행동을 전략적으로, 본질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7. 단순히 싸움박질을 하고 싶을 뿐이다

- 이것은 완전히 우스개 소리다. 그리고 평화경찰이 우리와 싸우고 싶어하는 것을 적당히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행동을 하는 모든 그룹 중에서 블랙블록은 아마도 당국과 싸우는 데 가장 무관심한 그룹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확실히 다른 반WTO활동가와 싸울 필요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전술적으로 완전히 엇갈린 데는 있었다해도)

8. 블랙블록은 무질서상태였고 혼란했었고 기회주의적인 폭도이다

- 우리들중 대부분이 무질서상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수일동안 토론한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다. 조직은 유동적이고 동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기회주의라는 혐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조직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창출된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창출을 도왔는가 안 도왔는가이며 우리의 대부분은 확실히 도왔던 것이다.(이게 다음신화를 창출하고 있지만)

9. 블랙블록은 문제를 모르고 있다. 블랙블록은 N30을 창출한 활동가가 아니다

- 우리는 직업적 활동가가 아니지만 시애틀의 이러한 집중행동을 위해서 활동해왔다. 집중행동을 위해서 자기 고장에서 활동을 계속한 사람도 있지만 수개월 전부터 시애틀에 와서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 확실히 30일에 길로 나온 몇백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었지만 그 중의 극히 소수가 블랙블록과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대부분은 세계회된 경제, 유전자공학, 자원착굴, 수송, 노동관행, 토착적 자율성의 소멸, 동물의 권리, 인권문제등의 이러저러한 효과를 연구했었고 몇 년 동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춤을 춘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10. 마스크를 쓴 아나키스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있었으니까 반민주주의자에다가 비밀주의적이다

- 확실히 해두자(마스크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에서는 살고 있지 않은 거다. 지난 1주일 이 이것을 충분히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음 일을 상기시키자 --- 우리는 경찰국가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옳다면 마스크 뒤에 숨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보급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대단히 고귀한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흔들지 못한다. 자본과 국가의 이권에 대하여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평화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박해를 우리들에게 평온한 얼굴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박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생으로 박해를 받을 만큼 특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우리에 대한 박해는 일상적 다반사가 되어있고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아첨의 하나의 형태로 유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막대한 양의 제 1세계의 특권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계를 구축하려면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다. 이 나라에서 부의 축적이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기물파괴행위에 대해서도 250달러이상의 중죄를 부과 당하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소유에 대한 폭력이란

우리는 기물파괴 행위가 생명을 파괴하거나 파괴 과정에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한 폭력적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사유재산 -특히 대기업의 사유재산-은 그 자체가 그들에 대한 어떤 행동보다도 비교가 안될 만큼 폭력적인 것이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소유물과는 다르다. 후자는 사용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전자는 장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인 소유물의 전제는 우리 개개인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일이다. 사유재산의 전제는 우리 개개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유재산에 기초를 둔 사회에서는 타자가 필요로 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많은 권력을 갖는다. 다시 더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타자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의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유거래 옹호론자는 이러한 과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타자의 삶 전부에 대해서 궁극적 통제를 보급하는 독점기업들의 네트워크이다. 공정거래의 옹호론자는 이러한 과정을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완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기준을 표면상

강요하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로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경멸한다. 사적 소유 -그리고 그 확대인 자본주의- 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개량하거나 완화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몇몇 대기업 상층부의 수중에 집중되거나 훗날 닥쳐올 대재해를 완화하는 책임을 지는 규제기관으로 전환되거나 어떻든 간에 그 누구도 자유롭게 될 수도, 힘을 가질 수도 없다.

유리창을 깰 때 우리는 사적소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정당성의 얄팍한 판자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에 침투하고 있는 폭력적, 파괴적 사회관계를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적소유를 파괴하는 것은 그것의 확정적인 교환가치를 확충적인 사용가치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점포의 유리창은 소매점의 억압적 분위기에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통기구가 된다(적어도 경찰이 가까운 바리케이트에서 최루가스를 뿌리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신문판매대(역주:미국에서는 노상에서 신문을 파는 소형박스형 판매기가 있다)는 이러한 통기구나 공적 공간탈환을 요구하는 소규모 바리케이트로 쓸 수 있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러한 쓰레기통은 미쳐 날뛰는 경찰군단의 장애물이 되고 불을 붙이면 추위를 막을 수도 있고 조명기구도 된다. 빌딩의 정면은 더 좋은 세계를 찾아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냈을 때 기록용 게시판이 된다.

주) 위의 내용은 ACME공동체의 것이며 N30에 참가한 모든 블랙블록의 당일 폭동이나 기물파괴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블랙블록에 관한 중요한 기술은『AIR』제10호에 실려있다)

2001년 7월 제노바

– 블랙블록 활동가의 성명 –

우리는 블랙블록 참가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변호한다.

우리는 강자의 정치에 무력하게 복종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레드존에 전투적으로 돌입해서 G8회의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왔다. 어제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잔인한 행동으로 대처했다. 시위자는 얻어터지고 최루가스와 충격탄으로 공격당한 끝에 구속되고 고문당했던 것이다. 경찰의 잔학성은 시위자의 한사람을 학살함으로써 정점에 이르렀다. 공표된 논평에서 블랙블록은 폭력 전체에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다.

자본주의자의 세계질서는 나날이 다양한 폭력을 낳고 있다. 빈곤, 기아, 채무, 차별, 몇백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생활공간의 파괴는 자본주의자들의 정책의 일부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다국적기업의 윈도우를 파괴하는 것은 상징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하지 않는다. 분열은 저항운동을 약화시키는 상투수단이다. 우리는 연대의 뒷받침이 되는 비판을 환영한다. 우리는 카를로 줄리아니의 학살에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

우리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저항으로 변화시키자. 윈도우가 신나는 소리를 낼 때 당신들은 떠들어댄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다.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혁명만세!

제노바 G8시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노바에서 하나의 블랙블록에 참가한 아일랜드 아나키스트인터뷰)

이러한 짧은 지면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개인적인 기억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아일랜드의 그룹은 주로 "저항 글로벌라이즈"(반글로벌리제이션그룹의 광범한 산하그룹)이나 Gluaiseacht(민주주의와 비폭력직접행동의 강력한 뿌리를 갖는 환경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조직화되는 방법이 대단히 인상깊었다. 큰 미팅은 매일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친화적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그룹은 대강 8개쯤이었다. 각 그룹은 어떤 시위에 참가하고 싶은가를 독자적으로 선택했다.(하기는 거의 모두는 목요일과 금요일 행진에 함께 참가하였지만) 목요일의 행진은 대개 오후 3시에 열을 짓고 아주 천천히 행진했다. 그 행진은 이민들과 단결한 것이었다. 베르르스코니는 회의유지를 위해 제노바에서 모든 이민자들을(아무도 위법자가 아니다)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이때 단 두사람의 이민자밖에 보지 못했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이날의 행진은 거대했고 약 6만여명이상이었다. 그룹에 따라 G8회의를 분쇄하는 것은 금요일로 했다. G8회의는 시 중심부에서 개최되었다. 그 구역은 이미 콘크리트토대로 다져진 14피트의 높은 펜스로 비상선이 쳐지고 대략 1만 8천여명의 경찰과 전투경찰에 의해서 악명높은 레드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러저러한 그룹이 돌입하는 각각 다른 안을 짜고 있었다. Turtle Blanches-Ya basta그룹을 포함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코뮤니스트-는 엄청나게 강화된 활동가들과 비폭력적인 직접행동을 제안하고 있었다. 레드블록의 사회주의자들은 돌입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동원할 것을 제안하고 컬러풀한 핑크블록은 허술한 의상으로 레드존으로 춤을 추면서 행진하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천박한 전술인가.

나는 악명높은 블랙블록과 함께 열을 섰다. 아나키스트나 아우토노미스트의 블랙블록은 마스크에 정갱이 보호대를 차고 직접 경찰과 맞서기를 제안했다. 우리 블랙블록은 2000여명이 넘었고 COBAS에서 온 다른 약 4천여명과 합류에 성공했다. COBAS란 일찍이 NATO에 의한 유고공습에 항의해서 10만명의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조직한 일반하층민노동조합그룹이다. 이런 거대하고 훌륭하게 조직된 집단은 불행하게도 레드존 앞에서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우리 블랙블록은 최종적으로 레드존으로 가는데 4시간이나 헤맸지만 돌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다 우리는 4차례나 최루가스세례를 받았으며 형무소나 부동산과 함께 은행을 공격하였다. 오코넬거리의 광장을 원형으로 데모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상하는 헛된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많은 기물파괴 더구나 자동차나 버스정류장 그리고 신호기 등의 파괴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현실적으로 G8에 대한 효과

는 없었다. 이러한 일들이 젊은 당황한 사람들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더 조직적으로 지역을 숙지했더라면 유효하게 경험이나 레드존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카를로 줄리아니의 죽음, 확대되는 경찰폭력 그리고 파괴가 확산된 거리는 그날밤 공포가 일어났다. 그러나 아침까지 분노는 계속되었다. 맑게 갠 일요일 데모는 거대했다. 통과하는 데 2시간이 필요했다. 데모의 선두는 또다시 폭도화했고 경관의 대열속으로 돌격하는 바람에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다. 줄리아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얀 연계" "재건코뮤니스트" 주로 이태리와 그밖의 사람들과 결합한 아나키스트들의 이날의 폭력은 그 전날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직접 행동적이었다.

모든 미디어는 전례에 따라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노바에 와서 참된 아나키스트이념 특히 직접민주주의와 직접행동(폭력과 비폭력 두가지)의 이념을 확대한 많은 사람들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 직접행동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캐나다 수상이 축소된 비공식 G8회의개최를 약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련의 저널리스트가 악덕정치가나 관료들의 흔해빠진 거동이나 회화에 경의를 표하는 등의 정치적 쇼는 끝났다.

세계의 보통사람들은 무대 중앙에 섰고 3.6초마다 굶어죽는 세계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2만발의 핵탄두를 갖고 우리에게 폭력에 대한 선전을 하는 이 세상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G8보다 훨씬 좋은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부채경감과 민주주의의 한가운데서 경찰에게 학살된 "검은 다람쥐 카를로 줄리아니 (23세의 아나키스트)" 와 우리들 거의 모두는 그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는 반란자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니까 G8의 지도자들의 회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채말소문제는 사람들의 의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와 G8가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압도적 다수가 부채말소에 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제3세계의 부채를 말소해서 밀레니엄을 맞고 싶다는 사람들이 69%나 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부채탕감을 위한 2000년 청원운동에 수백 수천이 서명했다. G8정상회의는 PR을 위해서 부채의 삭감을 얘기해 왔지만 국한된 부채탕감은 이제까지의 합의조차도 빤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연극이었다.

이것이 G8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자본주의의 현실이기도 하다. 모든 G8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거대기업의 대리인이다. 이러한 회사는 선거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지 부시는 석유회사로부터 7,500만불의 선거자금을 받았다) 매스미디어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미디어가 제노바의 시위는 매정한 프리건과 무지한 자의 혼합체라고 말하고 있다. 두가지 엇갈리는 비전이 충돌한 G8 제노바회의의 어디가 잘못됐는가. 지구라는 혹성 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G8가 한편에 있다. 그것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태리,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다. 또 한편에는 몇천 몇백만의 이런 나라의 시민인 사람들이 있다. G8정상회의는 당신과 아이들이 어떤 세계에 사는가를 결정한다. 닫혀진 도어 저쪽에서 결정이 조작되고 우리의 환경이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건강서비스는 특정한 자들이 장악하고 엉망이 되고 그리고 몇백만이라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기초의료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G8정상회의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건강관리의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트로케어에 의하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아직도 부채변제를 위해서 매일 3,700만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런 부채변제가 직접원인이 되어 1년에 700만명의 아이들이 물자부족으로 죽는다. G8회의가 지구에 부과하고 있는 네오 리버럴(또는 자유시장)이라는 독재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은 그러한 것들이다.

1998년에는 세계의 20%인 최빈국 사람들이 지출한 개인소비는 겨우 1.3%인데 반해서 가장 높은 수입국에 사는 세계의 20%인 사람들이 전체의 86%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지고 있다. 30년 전에는 2.3%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3세계 사람들을 한결같이 기만한 풍요한 서방측 제 국가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다. 1999년에는 빌게이츠는 미국가정의 저변 45%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 1995년의 시점에서 미국인 상위 1%의 부는 저변 95%보다 컸었다. 그리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9년에 비스니스위크지는 블루칼러 노동자와 비교한 톱 경영자의 평균수입은 1998년의 326배에서 419배가 된 것을 밝혔다. 제노바에 몇천명의 아나키스트가 (대다수가 블랙블록이었다) 데모에 참가했던 1980년대에는 42대 1이었다. G8은 인간의 비참한 착취의 정점에 있으며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하라는 등의 탄원 따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사람들은 이익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프로정치가가 없는 자주관리 코뮤니티와 일터의 연합에 의한 정치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은 G8따위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세계는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 발밑의 모든 것으로부터 투쟁에 의해서 쟁취되지 않으면 안된다. 싸우자!

D.I.Y 메시지

- 해외동지들에게서 전해진 말 -

(Anarchist Independent Review에서)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어.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행위를 정치적 쇼핑이라고 한 그들의 속뜻을 본받아서 ‘정치적 일상공작’쯤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적은 행동을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다는 데서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잡히지 말고 경거망동은 금하세요!)

▮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체제에 저항하는 몇 가지 D.I.Y.(자기가 할 수 있는)를 소개한다.

* 천황이든 어떤 국가의 원수이든지 반대하자!
(이런 돼지들이 일본을 ‘공식방문’ 할 때 특히 그렇다)
* 국제부인의 날(3월 8일)을 축하하자!
* 거리마다 스프레이 공격을 실행하자!
* 아주 더운 날 꼴 보기 싫은 자가용차에 코카콜라를 부어넣자!(그러면 외장 페인트가 녹는다).
호화차나 리무진이나 순찰차, 우익들의 차에!
* 미국의 모든 기지를 파괴해 버리자, 아니면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당신 몸을 펜스에 묶어두자!
* 건물을 점거하자!(정부시설·대학 등)
* 주택점거(Squat)! 왜 집세를 내야 하나!
* 이의제기하자! 이의를 키우자!
* 존재하기 위해서 저항하자! 생존을 위한 저항을!
* 자주독립과 자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 산타를 죽여라!
*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 자본주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지 말자!
* 모든 기회마다 국가를 분쇄하라!
* 스트라이크와 보이콧 그리고 피켓팅!
* 대학의 자주관리!
* 다국적 기업의 상품을 보이콧하라!
* 당당하게 춤을 춰라!
* 안전한 섹스를!
* 혁명은 즐거운 것!
* 클립을 직장의 커피기(또는 팩스)에 집어 넣어라! 그래서 못쓰게 만들어라!
* 부를 재분배하라! 재산을 재분배하자!
* 벽을 허물어라!
* 토지 소유제와 싸우자!
* 도둑놈들의 국가를 허물어뜨리자!
* 투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가부장제와 계급제를 분쇄하자!

* 놈들의 ‘진실’에 이의를 달자!
* 결혼이나 여성 고유의 역할에 말려들지 말자!
* 결혼은 가정 노예다!
* 얘기 대신 노래를!
* ‘나쁜 여성은 없다’ 악법이 있을 뿐이다!
* 맨 발로 밖에 나가자!
* 광고 속에 나오는 토막광고를 조심하자!
* 불쾌한 게시판이나 포스터에 낙서를 하자. 읽을 수 없게!
* 대기업 공조시설에 악취탄을 던져 넣어라!
* 학교에 대해서 “No”를!
* 훔쳐라!(더군다나 당신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을 때는 그 물건은 당신의 것이다.)
* 고급차의 가솔린 탱크에 설탕을 집어넣자!
* 직장에서 물건을 훔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자!
*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자!
* 총과 칼의 사용법을 배우자!(돼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유비무환이다.)
* 국기를 불사르자!
* 즐겁게!
* 생리대에 부과한 세금을 내지 말자!
* 등돌려 앉자!(특히 어용교수에게 배우는 대학생에게)
* 공공교통기관을 거져 탈 것! 개찰구를 뛰어 넘어가라!
* ‘신세계 질서’에 속지 말자!
* 6시부터 계엄령 개시! 거짓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자!
* 선동하고.,교육하고, 조직하라!
* 부자들의 사치품을 팔아먹자!
* 거짓정보를 퍼뜨려라!
* 서로 협동하자!
* 내 욕망을 믿어라!
* 혁명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 놈들의 화폐를 쓰지 말자! 그리고 물물교환으로 살자!
* TV를 꺼라! 혁명은 TV에 방영되지 않는다.
*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거절하라!
* 행간을 읽어라!
* 자유대학을 세우자!
* 소요사태를 만들어 내자!
* 모든 자본주의 반대 정치범을 해방하라!
* 궐기하라!
* 힘을 키우자!

(현재 상황(생활)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역자–)

비전(非戰)

— 2002년 1월 1일 새해인사 —

무까이 꼬(向井 孝)

우선, 고베의 친구 N씨가 연하장에 쓴 영국의 가디안 지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새해인사로 하겠습니다.

> “——— 미국 대통령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자와 무법자를 지원하는 그 어떤 정부도 스스로가 살인자이고 무법자이다. 그리고 그런 정부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스스로를 위기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부시가 곧 눈을 돌려야 할 정부가 지금 당장 여기에 존재한다!
> 그 정부는 과거 55년간 테러리스트의 훈련캠프를 운영했다.
> 그 캠프는 안전보장에 협력하는 『Whisc』이다.
> 그것은 조지아주에 거점을 두고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 그리고, 그것은 School of AMERICA(SOA)라고 부른다.
> 『SOA』는 1964년이래 6만명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의 병사와 경찰관을 훈련시켰으며, 그 졸업생 중에는 남미대륙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문 집행자이고 대량 살륙자와 독재자이며 그리고 미국정부가 고용한 테러리스트가 포함된다. 먼 그 곳에서 훈련받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살해된 희생자 수는 말할 것도 없이 알 카에다에 의해서 감행되었다는 이번 뉴욕에서의 공격, 대사관 폭파 그 밖의 공격(옳은지 그른지는 별개로 하고)에 의한 피해자 수를 훨씬 웃돈다.———”

나는 이런 사실에다 다시 더 아무 것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나의 새해의 인사로 하겠습니다.

"비전(非戰)"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담아서

미즈따 후우(水田風)

사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사리를 따지자면 "테러"든 "전쟁"이든 모두 다 안 된다. 두 가지 모두 나쁘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면 지금 나의 심정은 테러리스트의 편이다. 하기는 나는 말뿐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테러리스트……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처럼 말과 마음만 테러리스트인 사람이 예상 밖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메이지 시대의 아시오나 쇼오와 시대의 미나마따나……잠깐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져서……그렇지만 아무 일도 못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黑(La Nigreco)」 6호에서 무까이 선생은,

--한 사람의 남바다이스께(총으로 천황을 쏘고 사형 당한 사람)뒤에는 몇백 아니 몇 천명의 남바다이스께가 있었다.

다만 다이스께처럼 여하간에 실행하게 된 조건은

1. 마음먹고 뛰어 들어간 막노동판에서 어이없는 좌절을 맛보고 테러를 지향하게 되었다.
2. 테러실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자금과 무기조달(다이스께는 단장 총을 주변에서 쉽게 입수하고 사격을 연습했다)
3. 가족들의 감시를 벗어났고, 상경도중에 교오또에 도중하차해서 우연히 본 신문기사
4. 생각하고 주저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이틀 후라는 결행날짜와 시간의 절박)

이중에서 한가지만 빠져도 아마 구체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앙갚음으로 테러를 생각하다가 기회가 없이 세월이 흘러가서 원한을 품은 채 체념했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친지 K씨의 아들이 뉴욕의 무역센터빌딩 몇 층에선가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외출중이라 죽음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구나" 라며 다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TV에서 미국시민이 교회에서 추도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조금도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대체로 누구든 울면 따라 울게 되는데 이번만은 그게 아니라 "왜들 울어!"하고 생각했다.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겐 참말로 안됐지만 운이 나빴던 거다 하는 생각이었다. 예전에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멤버를 감춰준 P씨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 미국의 반 테러전쟁이나 P씨가 살던 아마미오오시마를 통째로 마구잡이로 폭격한 거나 도대체 이런 야만이 있을까!

코오베 「구원뉴스」에 산리즈까 잠정활주로 부지 내에 있는 텐진미네에서 농사를 짓는 이찌또오타까오씨의 얘기가 실려 있었다. "진짜 분해서 못살겠다. 사정이 허락하면 공항으로 쳐들어가서 마음껏 때려부수고 공항을 못쓰게 만들고 싶다", "잠정 활주로 건설이라구!? 터무니없는 공사지. 아직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았어. 매스컴은 공단의 선전기관이고 공단도 저희가 얼마나 폭력을 휘두르는지 자각하지 못했거든. 뉴욕의 테러도 그렇지만 솔직한 심정은 이렇듯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면 여객기 한 대쯤 격추시키고 싶죠"(현 나리따 공항에 얽힌 얘기-역자)

또 지금 치바 교도소에 날조된 범죄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다. 뉴스에서 비행기가 뉴욕무역센터빌딩에 돌격하는 것을 보고, 보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와아앗' 하고 함성을 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어떤가. 우선 테러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보낸다. 그런 다음에 미국의 아프간공격을 비난하는 게 틀이다. 그런데 코이데히로아끼씨(코오또대학 교원, 반핵 운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편에 서는가, 테러 편에 서는가하고 미국은 양자택일하라고 윽박질렀다. 억지로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테러'편에 서겠다……그러나 마땅히 질문해야 할 것은 '정의'냐 '테러'냐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끝없는 증오감이 끓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엄청난 부자이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자기들은 안전지대에 살면서 TV놀이를 하듯이 '적'을 몰살하는 자유까지 누리는 미국"이라고. (「과학, 사회, 인간」 No.79)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때 미국과 싸우는 북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우리는 응원했다. 일반시민이 출입하는 레스토랑에 폭탄을 던진 게릴라에 대해서 그들의 테러적 폭력에 대해서 우리 반전운동 측은 비난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당시 비폭력을 주장하는 우

리는 경멸 당하기까지 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때도 그랬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상시에 비폭력직접행동을 주장하면서 어째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가"하는 말도 들었다. 애당초 그들과 나는 폭탄이라는 수단과 그것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르다. 그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지만 입장은 같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행동할 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 자본이나 권력이나 폭력조직과 싸울 때는 여하간에 똑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의 생각 -- 다른 방법,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저 그들의 행위에 반대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여하간에 거대한 미국과 마주 서서 싸우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강대한 무력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는 오사마 빈라덴의 친지도 아니고 탈레반 정권을 좋다던가 나쁘다던가 논평하는 입장도 아니다. 물론 서로 같이 테러하자고 상의하는 사이도 아니다. 갑자기 눈앞에 그 결과만이 나타난 것이다(동아시아반일해방전선 때도 그랬다). 단지 그런 때 나는 우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어느 편에 서는가를 확실히 한다. 일에 맞닥뜨렸을 때 입장은 이쪽편인가 저쪽편인가 밖에 없지 않은가. 그건 그들이「어떤 사람인가 조사해 본 후 공감할 수 있으면 구원하거나 지원하거나 한다. 공감할 수 없으면 구원하지도 않고 물론 지원도 못하게 되는」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나는 그들을 우리들의 "동아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 "동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경우 테러를 몽땅 감싸안는다는 것인데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지. 지원을 밝히는 일이다. "그들의 동아리"라는 것은 세상과 권력이 생각하는 것을 감당하는 말이고 그것은 "테러"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들만 지게하고 자기 보신적이고 변명 투로 자기는 안 했다고 해서 이런저런 비평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가.

일찍이 베트남 반전 당시 내가 주장한 '비폭력'을 비난(?)한 사람들이 지금 '테러'의 폭력을 모두가 비난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에 강한 불신과 위화감을 갖는다. '운동'에 대해서 내세우는 슬로건 "테러도 전쟁도 반대"라는 말은 우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나는 그 따위 그럴듯하고 비겁한 그들의 입장을 의심한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방자한 짓거리를 하는 지금 이때 우리가 일본이라는 '곳'에서 테러도 전쟁도 반대한다는 따위의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 나는 비폭력 직접행동의 입장에서 '테러'편에 선다. 테러밖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다못해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댄다. 그게 바로 나의 입장이자 "비전(非戰)"이다.

9. 11에 대한 대답

「중립지역」에 관하여

지하철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을 지지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생각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느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오옴 진리교의 활동에 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흥미가 없으니까, 단지 그런 내적 공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과 다른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옴진리교 배격이라는 깃발을 보게되면 순간적으로 나는 어느 편인가. 시민사회냐 오옴 진리교냐 그러면 나는 오옴편이다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공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테러의 이유가 밝혀지면서 그런 내적 공감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9. 11 테러에서 나는 그런 내적 공감은 끓어오르지 않았다. 그게 어디까지나 외적공감이었던 것은 그 사건이 사회적 문맥에서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일 게다.

지금 피 억압자의 존재가 어디까지 9. 11테러로 표현될 수 있는가. 더글러스 라미스의 「중립지역」을 읽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극악무도한 테러범죄가 일어났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비판의 구조나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바로 이 사건에 겹쳐 생각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 글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으로 읽은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논지(論旨)전체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굳이 말하라면 다소 억압적인 글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만약에 '잘했다. 맛 좀 봐라'하는 말을 했다고 해도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그 말이 천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우둔함을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한 그도 비판받아야 한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느낀 것인가.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잘했다'라는 말을 허물어진 벽돌더미에 깔린 존재를 알면서 한 말이라 해도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잘했다'하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야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9. 11을 '이슬람원리주의'자가 일으킨 '극악무도한 테러범죄'이며 얘기할 내용이 없는 단순한 대량살육의 범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옛날 읽은 아시누마 사건의 교통사고설(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는)과 같은 것이다. 9. 11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지지하는가 비판하는가. 그러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죽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리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제기된 현실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9. 11로 전개된 사실을 나에게 제기된 문제로 생각한다. 공포로서가 아니라 과대평가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왔다고 미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빈 라덴의 두 가지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과 팔레스타인을 1947년 당시 상태로 되돌리라는 것 – 는 많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국가체제간의 정치적 지배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인간과 집단의 존재. 국경에서 울면서 쫓겨나는 절망하는 난민의 눈에 이 세계는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굴욕과 무감각 그리고 차별과 탄압 때문에 주저 없이 폭탄을 투하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형평성을 잃은 경제적 고통의 확대...

그러나, 더 깊이 원인을 분석하다보면 얼마가지 않아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는 단순하게 정리되고, 선의에서나 악의에서나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이나 선동은 집단화되고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은 어리석은 자기보신용으로 보기 좋게 꾸며질지도 모른다. 대량살육이란 사실과 살육자의 존재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구하라는 목소리에 묻혀서 사라져간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침내 나라를 구하라는 목소리로 바뀐다. 간단한 도식 속에 갇히면서 냉철한 것은 어딘 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본다. 논의가 어떻게 되든 미국정부의 정치적 지배가 테러의 원인이라는 것에 변화는 없다. 그런 구조는 전쟁의 일반성으로서의 자국민 방어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전쟁으로 동원했다. 그리하여 그런 죽음을 이용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다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의 근본원인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인간에 대한 모욕이 아직도 전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년 7월 제노바에서 한 청년이 죽었다. 경찰에 사살된 아나키스트 청년의 피투성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다. 블랙블록(Black Bloc) 아나키스트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시애틀에 이어 더욱 심각한 형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사망자가 나온 것 때문에 운동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논의가 일어났다. 폭력이라는 '적의 클론'이 운동내부에 발생하고 운동이 스스로 허물어지는데 대한 의구심, 유럽의 운동이 갖는 문맥에서 테러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은 운동가에게는 분기점인지도 모른다. 9. 11 후에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사무실 수색 등 반글로벌이즘 운동과의 연계를 두려워한 권력의 탄압이 있었다. 요즘 콘 벤디트가 아나키스트 청년을 비판한데는 놀라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보복을 지지하는 듯한 멤버가 녹색당 내부에 있다는데서 그런 분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도착된 판단인 것이다. 그것은 운동의 죽음이 아닌가! 사망자가 나온 직후, 자주적인 인터넷의 뉴스.미디어에 나온 어떤 투고를 보았다. 투고자는 블랙블록의 한 젊은이가 시위현장에서 권력주의자라고 매도당했다는 사실이 씌어있었다. 그가 맑스주의 그룹에 있어서 그랬는지 또는 시위의 격화를 제지하려고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쁜 항의자와 좋은 항의자를 선별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좋다 나쁘다를 선별하는 것은 그것을 단속하는 권력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운동에 있어서의 자세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입장을,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기구나 권력자에 대한 협력자 이외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평적 입장에 서야 한다. 나는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적의 클론'이라고 생각한다.

9. 11 테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전세계의 국가체제에 농락 당하고 짓밟혔다는 점에서 '같은 편'인가? 9. 11 테러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데서 우리는 "같은 편"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사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탈레반 병사가 된 조지 워커는? 그 누가 같은 편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결정하면 나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는 역사상 그 어떠한 테러리스트도 살지 않는다. 오까모또 키미조오나 사이또오 카즈도 없다. 유이주우노싱은 그래저래 그의 테러의 뿌리는 이해된다. 지하철 살인사건 후에 어떤 사람과 인터뷰했을 때 '나는 전쟁을 알고 있으니까 일인일살은 의미가 없네'해서 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놀래기도 했다. '의미'가 있는 테러에 대해서 나는 접점이 없다. 내가 테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의 생명은 자기와 맞바꿔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뿐이다. 도대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설정에서 사태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미국의 반전그룹으로부터 일본에 온 사람의 강연회에서 '불량국가'미국에 의한 살육의 자행과 지원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는 미국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폭격한 지역의 일람표는 이번 아프카니스탄까지 모두 20개국이 된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침략,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동티모르 억압, 알리엘 샤론 지원, 칠레의 아옌데 정권 타도, 중미 비정규군에 대한 자금 제공, 그리고 살육기술자 양성학교 운영, 그리고 이라크……

이것은「풍류몽담(風流夢譚)」사건에 관해서 쓴 타께우찌 요시미(竹內 好子)의 문학인데 나는 이 부분을 미국의 반전그룹에 보내주고 싶어졌다. "'테러를 절멸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테러의 제일 큰 뿌리는 신앙에 연관되어 있다. 입법이나 행정조처는 아무리해도 인간내면에 연관된 힘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잘못된 믿음은 법률만능 적인 생각이고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

다시「중립지역」에 대해서

저강도전쟁(低强度戰爭)이라는 말은 편리한 말이다. 전쟁은 이제 와서 시작된 게 아니다. 늘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발명된 것이다. 전쟁법이라는 인가제도까지 있다. 그러나 전쟁은 뭐니뭐니해도 살육이고 국가에 의한 죽음으로의 동원이다.

때문에 중립지역이야말로 희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한 곳이 어디 있는가하는 생각도 한다. 지금 글로벌리즘의 우산 밑에서 국가간의 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 20%의 인간이 80%의 부(富)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극악무도한' 테러그룹과 사이에 끼여 있는 중립지역은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테러도 전쟁도 반대'한다는 누군가와 쫓겨나는 난민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중립지역 따위는 없으며 80%라는 거대한 난민 속에 20%의 우리와 미국이 붕 떠 있을 뿐이다.

비폭력 평화대(Nonviolent Peace Force=NP)

-「행동하는」평화주의로, 11월「일본그룹」발족(朝日新聞 2002.4.25) -

분쟁지역에 비무장시민이 100여명규모로 파견되어 인간방패가 되어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비폭력 평화대(Nonviolent Peace Force=NP)는 11월말 인도의 델리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한다. 이러한 국제공헌이야말로 일본헌법이나 이념에 합치된다고 국내에서도 젊은 헌법학자나 평화운동가가 「일본그룹」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부 혼다 마시까즈)

NP의 아이디어는 직접적으로는 99년 5월 헤이그평화시민회의에서 제기된 논의를 계기로 미국의 평화운동가 데이빗 핫소씨등이 세계에 호소했었다. 배후에는 인도독립운동의 간디나 미국의 공민권운동가 킹 목사등에 의한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후의 파리부전조약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의 일본헌법 전문 제9조에 이르는 20세기의 국제사회에서의 전쟁위법화의 흐름이 있다. 헌법전문은 공식적인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고 전문의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한 제9조는 방법으로서 어디까지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그룹공동대표 키미지마 하루히꼬(북해학원대학교수)에 의하면 일본의 평화운동은 오랫동안 헌법9조에 촛점을 맞춘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는다" 등 '하지 않는'평화주의가 중심이었다. '하지 않는'평화주의가 이룩한 역할은 크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키미지마교수는 <행동하는>평화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NP의 활동내용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 동거하면서 보호구출하고 인권침해의 기록공개, 적대하는 양자간의 중재와 조정, 분쟁후의 평화구축을 위한 지원 등이다. 팔레스티나나 중남미등에서 현재까지 인권문제NGO가 담당하던 활동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PKO)영역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100명 단위의 비무장시민이 책임을 지고 무장부대의 활동영역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NP의 특징이다. 장기적으로는 폭력이나 차별 그리고,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운동이나 국제적 구조를 만드는 데도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다. 분쟁지역에 가는 대원은 감시자로서 냉정함이 요구된다. 무장집단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트레이닝이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대원의 생명이 불필요한 위험에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 핫소씨나 키미지마교수, 과테말라의 리고베르타 벤추재단의 크라우디아 사마요아대표등에 의한 국제운영위원회는 현재 긴급시의 철수조건을 포함한 행동기준 작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시험프로젝트의 내용이나 파견처를 검토하고 있다. 과제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재정측면이다. 구미의 재단을 중심으로 기부금으로 2002년 예산 은 77만7천 달러를 확보했으며 제1호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서 2003년까지는 적어도 5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야한다. 대원의 활동을 세계각지에서 지원하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지원멤버도 필요하다. 일본그룹의 집회 등에서 NP참가에 관심을 나타낸 사람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나 된다. 팔레스티나에서의 평화 행진 중에 이스라엘군의 총탄파편에 맞아 귀국요양중인 유학생 키요스에 아이사씨(30세,도쿄출신)은 NP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저항은 다시 또 무력을 부른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투쟁방법은 역시 비폭력직접행동주의이다"고 말한다. 그는 6월에 다시 팔레스티나로 떠난다.

※한국에도, NP의 세계적 연대를 위해 NP의 홍보담당관 Mele씨가 방문하여 약 70여명의 평화를 갈망해 온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 대구 - 부산에서 3일간 릴레이 평화워크숍을 가진바 있다.

히모리씨 이야기

2002년 4월 9일에 일본의 아나키스트가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

동료여러분,

9.11 이후, 우리는 전세계 제국주의국가들에 의해 점점 더 강도높게 행해지고 있는 비극적 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위 많은 친구들은 이스라엘 샤론총리와 그의 군대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슬픈 소식을 도쿄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타까오 히모리씨가 3월 30일 저녁 도쿄의 히비야공원에서 이스라엘의 침공에 항의하여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02년 3월 30일 팔레스타인에게 보내는 히모리씨의 마지막 메시지

From 유세프 히모리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어느 해변가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시오니스트 샤론의 침공, 학살,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침해당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 평화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 일본은 요즘 군비증강을 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등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많은 아시아인들은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나도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만행을 눈감아주면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다. 나는 소위 평화국가라는 나라들이 이러한 현실을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다. 오늘날의 첨단군사기술에 의해 예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싸고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존중의 정신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비록 소수였지만, 일본에서도 이스라엘을 방조하는 미국정부,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원하는 일본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

이스라엘에 강력한 저항을!! 모든 폭력국가에 맞서자!! 시오니즘은 물러가라!!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 위의 글은 타카오 히모리씨의 유서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Yuseph Himori"라고 사용했다. 여기서 언급된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해변에서"는 그의 고향인 "아키타 해"를 떠올리면서 쓴 것 같다. 당연히 보내졌어야 할 유서가 왜 일본의 동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히모리씨는 행여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안이함과 무력함에 죄책감을 가질까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히모리씨의 이런 뜻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들 양심에 손을 얹고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나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18세의 자살폭탄공격을 감행한 팔레스타인소녀처럼 그 또한 자살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

AP통신의 기사

– 팔레스타인 해방을 바라는 일본의 어느 활동가가 도쿄의 한 공원에서 분신 자살했다. –

도쿄 3/31

;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어느 일본인이 분신 자살했다고 그의 동료가 말했다. 토요일에 54세의 타카오 히모리씨는 온 몸에 기름을 붓고 스스로를 불살랐다고 그의 친구 마사오 아다치가 말했다. 일본경찰의 대변인 코지 하타는 한 남자가

히비야 공원에서 지난 주말에 분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벚꽃 구경 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솟아오르는 불기둥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타는 밝혔다. 그의 친구 아다치는 말하기를, 그는 "Voice"라는 활동그룹의 멤버였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자주 해왔다고 했다. 소방대원이 불을 끈 후 히모리씨에게 스스로 불을 붙였는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리고 바로 사망했다.
토요일에 몇몇 일본의 활동그룹은 팔레스타인의 "Land Day"를 맞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반 아라파트의 감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970년대에 몇몇 일본의 급진좌파그룹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테러공격을 감행했었다.)

주) 일본언론에서 히모리씨의 죽음은 보도되지 않았다.

히모리씨에 대하여

그는 급진그룹인 "교토 빨치산"의 멤버였으며 1970년대 초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적군파 투쟁에 가담했다.
1972년 5월 30일 "Riddah 투쟁"의 생존자로서 일본에 송환된 이래로 그는 줄곧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위기에 처한 물

- 물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다 -

모드 발로

(모드 발로는 캐나다시민단체연합 "Canadians"의 공동대표, 캐나다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교육, 의료보험, 생활인프라 문제에 관한 분석, 그리고 물에 관한 시민행동계획을 제안했다. 저서로는 "Blue Gold")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겠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민물(담수)은 지구 총 수량의 0.5%가 채 못된다. 나머지는 해수, 이용할 수 없는 만년설, 지하수 그리고 흙 속에 스며든 수분 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담수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다. 지구의 물은 지구가 탄생한 때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고 물은 부단히 순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먼 옛날 그 곳에 살던 공룡의 핏속의 물이나 아이들이 흘린 눈물을 거쳐 온 것이다. 물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물을 대신할 물질은 없고 물은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세계는 지금 물의 위기가 닥쳐왔다.........

우리는 지금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는 지구가 가지는 민물을 고갈시키고 서로 뺏고 뺏기고 하면서 오염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사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구의 물 공급을 위협하는 원인은

1. 인구의 폭발, 지구인구는 해마다 8,500만 명이 증가한다. 2025년까지 26억이 늘어날 추세이고 보면 90억이라는 인간이 오늘과 같이 서로 담수를 나누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2. 증가하는 물 소비
   1인당 물 소비량은 20년대에 2배로 뛰었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율의 2배가된다. 공업화와 하이테크라는 대량의 물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생활스타일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3. 농업의 공업화는 물의 과잉소비를 초래했다. 실제로 최근 50년 동안 잘못된 농업 때문에 전 세계의 경작지 중 3분의 2가 물 부족 상태가 되었다.
4. 물의 대규모적인 오염, 담수에 미치는 최대의 위협은 대규모공장의 급속한 증가와 공업화된 농업과 그리고 도시화 등에 따르는 오염이다. 화학비료나 초산비료 유해미생물, 화학 약품,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은 하천이나 수원지로 흘러들러 담수를 오염시킨다.
5. 지구 온난화와 삼림벌채, 그리고 습지의 상실이다.
   습지는 물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 세계의 습지는 절반이상이 파괴되었으며 파괴의 속도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지속성이 있는 삼림이 무성한 토지는 지구전체면적의 20%에 불과한데 그나마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여 호수나 하천 등의 지표수가 증발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수계보전구실을 하던 산야의 눈(雪)도 가속도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6. 댐과 하천 개수
   최근 100년 동안에 40,000개가 넘는 대규모 댐이 건설되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수된 하천은 50만이 넘는다. 예를 들면, 갠지스강이나 황하, 나일강, 콜로라도강 등은 수량감소로 바다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댐과 하천개수가 원인이다.
7. 도시화의 문제
   무질서한 도시화는 이용가능한 담수량을 감소시킨다. 슬로바키아의 과학자들이 최근 연구한

비에 의하면 지표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비가 돼서 숲이나 지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포장도로나 빌딩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이 곧바로 바다로 흘러간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구는 매년 1조 8천만 톤의 담수가 상실되고 있으며 앞으로 100년이면 지표에서 상실되는 물은 대기와 순환하는 물의 전체량과 같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10억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구상의 담수 공급원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인류가 최근에 와서 주목하게된 것은 지하수인데 지하수의 저수능력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퍼 올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세계인구의 25%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지하수의 공급원이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린 지역은 중동국가이다. 인구의 75%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지하수가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티나도 지하수가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귀중한 담수층에 해수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22개 국가가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물의 공급을 경제발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각지의 샘물이 고갈되고 지하수면이 하향하여 대소하천이나 호수가 말라버렸다.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샘물은 더욱 깊게 굴착해서 남아있는 퍼 올렸기 때문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고 몇백만 명의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 화북평화의 지하수면도 급속하게 하향했기 때문에 수도 북경의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전지구적인 물위기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이제 인류의 당면문제가 된 것이다. 물 위기는 지구 인류와 지구생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데 있어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연합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 31개국에서 절박한 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10억이 넘는 인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류의 절반이 기본적 위생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며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체내로 들어가서 매년 2500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8초에 한사람씩이라는 비율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오염된 음료수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하수의 고갈로 물의 공급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급기야는 국가간에 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류는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인구의 3분의 2 가까이 심각한 물 부족위기에서 생존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공유재산을 부정한 워싱턴 합의

불행한 일이지만 물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워싱턴합의가 확정된 때였다. 워싱턴합의는 모든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서 모든 분야를 민영화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게다가 보건이나 의료 그리고 교육까지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전세계 어디서나 채용되어야 유일한 선택이라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는 경제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가지는 목적의 하나는 국가간의 경쟁이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나 기준을 없애버리고 정부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에 위임한다. 또 하나의 목적은 공유재산이라는 생각을 공격하고 부정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비는 내리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물고기는 낚시에 걸리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숲 속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종(種)도 생명체의 DNA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합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대한 글로벌기업이 국가의 법률을 벗어나서 정부를 대신해서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 거대기업이 보기에 물은 "BLUE GOLD" 다시 말해서 "푸른 금"이다. 20세기에서 석유가 해낸 역할을 21세기에서 물이 한다는 것이다. 물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귀중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페리에를 비롯해서 68개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네슬레의 회장이었던 사람은 "물은 땅속에서 퍼 올리기만 해도 와인이나 우유나 석유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말한다. 세계은행과 IMF는 이런 기업을 지원하고 이른바 제 3세계에 대해서 공공적 수도서비스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계약하라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것이 채무삭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물은 21세기의 비즈니스 기회

잡지 "포천"에 의하면 물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연간 약 1조 달러의 이익을 낳는데 이것은 석유산업의 연간이익의 약 40%에 해당되고 이미 의약품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미국은 물 관련 산업에서만 150억 달러에 달하는 물을 사들였다. 그런데, 현재 민간기업이 지배하는 물은 전세계수량의 5%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위기의 심각성은 거대한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 관련 산업은 연간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물 관련 기업이 하나 둘씩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계적 규모의 물 자원 고갈과 이에 따르는 물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가"고 어필했다. 더구나, "물은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그야말로 무진장한 상품이었으나 이제는 무제한하지 않으며 힘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10대기업이 현재 영리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2대기업은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 비벤디 사와 스예즈 사인데 이 두 개의 기업만으로도 150개국 2억의 인구에게 민영화된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울사나 벡텔유나이티드 유틸리티사 등도 세계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의 인상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주민에게 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불투명한 거래와 수질저하 등 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영리목적 물 관련 산업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용기에 넣은 물 산업은 거대산업이 되었으며 1년에 20%라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만 해도 세계는 840억 리터의 바틀 워터(Bottled Water)가 팔렸고 이것으로 2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물의 수원지를 찾아서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수맥을 탐색하고 있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도 물 관련기업의 리더를 지향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현재 전세계 음료소비량의 10%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차 냉수와 온수 그리고 코카콜라는 세계의 표준음료가 될 것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도 몇몇 대기업에서는 사업용 물을 먼 곳까지 수송하기 위한 대규모 송수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느 기업은 라틴아메리카의 미개지를 사들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을 판매할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또 다른 기업은 거대한 탱크와 밀봉용기를 만들어서 대량의 물을 해외로 수송하여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 관련 기업을 보호하는 WTO

이렇게 기업이 물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이다. 이미 북미자유협정(NAFTA)은 물을 상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정의했다. 상거래에서 상품이 되는 물은 한번 수도꼭지를 열어 버리면 그것을 잠그는데는 이러한 협정으로 보증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WTO는 어떠한 목적에서든 수출을 규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NAFTA 11조는 어떤 나라의 정부가 그러한 규제를 무시할때는 기업은 상실된 미래의 이익을 돌려 받기 위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정부가 미국의 생벨트사에 대해서 물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생벨트사는 NAFTA의 자유화 룰(Rule)을 근거로 해서 캐나다 정부를 고발했다. 또,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에서는 "환경관련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실행되고 있는데 만약 미국정부가 이 협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물 관련 서비스와 물 공급의 민영화가 WTO의 전 가맹국에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 민영화 지지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부의 축적수단도 아니며 시장원리의 종속물도 아니다. 물은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나 정부는 충분한 재원과 능력도 없으며 물에 대한 정책도 없고 물 공급의 인프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을 서비스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확실히 나는 일부정부가 공유재산인 물 자원을 불성실하게 다뤘고 낭비와 오염에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책임한 다국적 기업에 관리를 위임하자는 게 아니다. 올바른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에게 물의 관리를 점유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되면 물의 관리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의 원리에서가 아니라 희소성과 이윤극대화의 원리(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관리되게 마련이다. 기업은 소비의 확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물의 보전보다도 정수를 위한 화학약품의 사용, 담수화 기술, 마켓팅, 물 무역 등을 위해서 투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물의 배분은 환경이나 사회적 공정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시장논리의 이윤추구의 관점에서 실행될 것이다.

물은 인류의 공유재산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고갈되어 가는 전세계의 수계(水系)를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의 상품화는 사회윤리나 환경차원에서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파괴된 수계를 복원하고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천의 유역을 관리하고 습지나 수원지 그리고, 수맥이 있는 장소를 보호하는 도시개발을 실천해야 한다. 또 가난한 나라의 채무를 삭감하고 대외원조를 증가시키고 금융투자에 과세해야 한다. 그래서, "물은 어느 시대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공유재산이다"는 공통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서, 물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소유물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상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침해될 수 없는 기본 인권인 것이다 이익증식을 위해서 물을 소유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물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정부를 지방조례나 국내 국제법의 하위에 두고 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에 기초한 거대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완전히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는 "세계 물 조약" 또는 국제적으로 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확립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물의 보전과 물의 공정한 분배라는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다. 세계시민은 2002년 8월에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서미트 리우+10"을 2003년 3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제 3차 세계 물 포럼"을 위해서 각국정부가 "세계 물 조약"을 비준하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 인권운동,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등 갖가지 시민운동은 힘을 한데 모아서 인류의 공동재산인 물을 수호하는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가 발행하는 월간「Alternative」2002년 5월호에서 따온 것)

지구상의 물을 나누어 먹고 보호하는 조약 발의문

우리는 이하의 사실이 보편적이며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선언한다.

지구상의 담수는 그 가치에 있어서 실용성이나 상업적 가치보다 우선되고 모든 정치적 상업적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존중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상의 담수는 지구와 모든 생물에 속하는 것이며 이윤을 위해서 매매 거래되는 사사로운 상품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구상의 담수공급은 공유의 유산 공공 신탁물이며 기본적 인권이며 따라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한된 세계의 담수공급은 많은 사람과 생물이 생명을 위한 물을 빼앗기고 있을 만큼 급속하게 오염되고 전용되고 고갈되고 있다. 세계의 각 정부는 귀중한 유산인 담수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지구상의 담수공급은 지구의 공유물이며 모든 민족과 공동체, 모든 차원의 정부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담수가 상업목적으로 민영화, 상품화, 거래되고 수출되는 일은 인정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서 국제 또는 두 국가간 무역투자협정에서 즉시 제외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서명국을 포함해서 이 조약의 체결자는 지구상의 담수자원 공급을 신탁물로 관리하는데 합의한다. 서명자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영역 내에 있어서의 담수자원을 감독하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공유되는가를 결정하는 주권과 책임을 인정한다. 전 세계의 정부는 자기 영역내의 물이 공유물임을 선언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체제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세계의 담수공급은 글로벌한 공유물이기 때문에 여하한 기관이나 정부, 개인, 기업도 이것을 이익을 위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아나키즘을 21세기의 사상으로 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하는 것이 바로 아나키스트가 해야 할 일이다.

권위는 강요할 수 있지만 자유는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자유를 얻기 위해 권위와 싸울 수밖에 없다.

빵돌이가 일본으로 수행을 떠나는 바람에 일손이 많이 모자랐다. 주어진 조건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게 바로 남은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9.11이후, 미국의 횡포는 심해졌지만 이에 맞서는 힘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선진국의 폭력을 이기는 길은 오직 비폭력이다. 비폭력직접행동 뿐이다.

– ㅎ –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빵돌이가 잠깐 소개한 히모리씨 이야기를 실었다.

같은 가족, 친구, 민족이 아니더라도 짓밟히고 있는 전세계의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하며 저항하기 위해 분신자살을 택한 히모리씨를 접하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나에게도 바로 그 고통받는 대다수의 민중을 한 가족처럼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믿음은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즐거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 등대2 –

자매지(姉妹紙) 소개(가격 1.500원)

▮ 상계동 모임 소식지 1호(부정기) (2001. 11. 26)

- 무까이 꼬오의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
- 비전(非戰)
- 대담 – 9.11 미국테러에 대하여
- 한국인의 아나키즘 수용과 전개 …… etc.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刊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No. 2.

▮ 펴냄 : 2002년 5월 29일(수)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판매 : 1.000원

▮ 우편 발송 가능 : 2권 이상(발송료 추가)